

10월은 승리의 달

승리절 있음으로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의 24개의 질문이라는 내용이 일간지에 실려서 장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회장은 암 투병 중 이런 질문들을 천주교 신부(절두산성당 박희봉)에게 적어서 주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신문에 나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천주교 차동영 신부, 기독교 김홍도 목사, 신천지 이만희 씨 등이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이에 대한 답을 책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우리 제단에서도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왜 전쟁과 살상을 막지 못할까(드론 공격으로 불타는 사우디 유전)

‘세상에서 묻는 기독교의 의문’

당시 조선일보에는 안모 목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공색하고 애매모호한지 알게 하는 내용이다. “예수 몰랐던 ‘착한 심정’은 지옥에 갈까?”라는 제목 아래 ‘세상에서 묻는 기독교의 의문’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기독교 안모 목사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는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신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존재할까? 예수를 몰랐으니 지옥에 가나? 전쟁과 재난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도 신의 섭리인가?” 등등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는 것들을 안모 목사에게 물었다.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타락의 미끼인가?”라는 질문에 안 목사는 기독교의 상투어인 ‘자유 의지’를 대입하여 설명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타락할 수도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했다. 죄를 지었는데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고.

이 얼마나 모순된 답변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못하는 일이 없는 절대 능력자이다. 그런데 먹으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자유의지’라는 미명하에 방치해 놓는다.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게 된다. 아담과 해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자신에게 있다는 논리다. 이 논리로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자비하고 무능한 존재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어떤 부모가 쥐를 잡기 위하여 집안에 쥐약을 놓는다고 하자. 철모르는 어린 자식에게 “이 그릇에 담긴 것은 쥐약이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만 하고 ‘자유의지’라는 미명하에 방치해 놓는다. 결국 그 쥐약을 먹고 그 어린 자식들이 죽게 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쥐약을 아이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놓거나 쥐약을 치워버렸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이라면 선악과를 베어버렸거나 없애버렸을 것이다.

기자가 “신이 선하다면 왜 재난과 전

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는가?”라고 묻자 안 목사는 “재난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일 수도,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한다. 이 또한 모순된 답변이다. 선한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식을 무참하게 죽인다면 악한 하나님이 될지언정 선한 하나님은 될 수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려면 결코 이렇게 하실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마(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나님은 죽이는 능력이 없다고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치가 맞는 다.

무책임한 답변들

또 기자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나?”라고 묻자 안 목사는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착한 심정이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신이 섭리하시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여길 뿐이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한다.

이 또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지옥에 갔다, 안 갔다 명확하게 밝혀야지 알지 못한다면 신의 섭리 운운하는

것은 뭔가 공색한 변명밖에는 안 된다.

만일 이병철 회장이 안모 목사의 답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무책임하고 납득 안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질문(지면관계상 24개의 질문은 실지 못하는 점 이해바람)을 보면 매우 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평범한 질문이지만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신의 실체와 속성 등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끝까지 붙잡고 묻는다.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사후세계가 있는가, 있다면 각 종교마다 왜 다른가, 천주교 신자가 많은 나라에서 왜 범죄율이 높은가, 공산주의자들과 신앙인이 어떻게 다른가 등등을 묻는다.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답이 나와

기독교의 신은 창조자라는 설정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또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였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답을 낼 수가 있다. 원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지금 같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여 무능한 존재가 되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쟁과 재난이 있으며,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심정이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갔다는 논리는 참으로 웃길 교리이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해서 지옥에 간 것이다.

따라서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이 나오면 모든 답이 풀리게 되어 있다. 마귀에게 승리한 하나님이 나오면 이 세상은 전쟁과 싸움이 없는 지상 천국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승리절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구세주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를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어서 빨리 구세주임을 인지하고 인류 구원의 큰 뜻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지만 마귀를 죽이면 그 마귀가 인생들의 생명까지도 죽게 하므로 부득이 한 명 한 명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알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다.*

인사명령

본부제단 승사발령: 박인숙 신미영 강윤민 이상 3명

태풍이 한국 피해가는 이유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 황해도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를 피해갔다.

최근 5호 태풍 다나스로부터 8호태풍 프란시스코, 그리고 13호 태풍 링링까지 한반도를 향하여 불어온 여러 태풍이 한국에 직격탄을 날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태풍은 한국으로 향하다가 방향을 바꾸는 걸까?

구세주 보호 아래 있는 한국

2003년 사스(SARS, 중증호흡기증후군)가 광궤했을 때 아시아 대부분의 나

라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타국에서 전염되어 입국한 환자도 곧바로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다. -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뭐라고 하나 - 당시 구세주께서는 “구세주가 있는 한 사스가 한국에 못 들어온다. 구세주가 그 마귀를 모조리 죽이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구세주는 치유의 신이므로 병마를 순식간에 죽여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은 16강에 갈 목표를 세웠었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4강에 올라갔다. 그때도 구세주

께서는 “한국이 16강을 넘어 8강, 4강을 넘어 우승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후 전략을 바꾸어 4강에 그치게 하셨다. 구세주의 목적은 인류를 영생시키는 데에 있지 축구 우승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마귀들을 죽여 없앴다고 하셨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삼신일체) 一人出된(일인출된) 眞人(진인)의 증표인 甘露(감로)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9 6. 19. 보광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2019 8. 12. 성탄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2019 8. 12. 성탄절 내린 이슬성신 (임수빈 촬영)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